

근로는 최고의 애국양식

근로자의 날 치사

1981년 3월 10일

친애하는 전국의 근로자 여러분!

한국노동조합연맹 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근로자대표, 기업인대표, 그리고 내빈 여러분!

본인은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먼저 전국의 여러 일터에서 생산과 건설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8백만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를 충심으로 치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낮은 이역에서 온갖 악조건을 견디며 우리의 산업발전과 국제간의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근로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첫 근로자의 날을 맞으면서, 본인은 오늘의 이 식전이 근로를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새 시대를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근로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도 국가공무원이나 공사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봉급생활자들이 정신노동을 통해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민들도 일상의 근로를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근로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는 사실상 모든 국민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없는 데다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많은 심신의 노고를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국가를 흥융케 하고 민족의 저력을 세계에 선양하는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근로입국」에 대한 자신과 결의를 가다듬어 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근로에 대한 종래의 인식과 평가를 일신해야 할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근로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인식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한 피땀어린 노력의 발휘를 제약해 왔던 정체의 역사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하겠습니다.

근로는 이제 우리 국민의 일반적 생활양식일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최고의 애국양식임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근로의 가치를 자부하고 남의 근로의 가치를 숭상할 때 우리는 근로입국의 자랑스러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모진 시련을 겪었으나, 근로자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 각자가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 내고 마침내 희망찬 새 시대의 개막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던 경제개발의 귀중한 경험을 되살리고 갈등과 혼란으로 국기마저 흔들렸던 지난날의 쓰라린 체험을 교훈삼아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 민주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아직도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하겠습니다.

세계도처에서 분쟁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정치의 격랑이 언제 한반도에 밀어 닥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 각국이 수년간 계속되는 경기심체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최근 정치 사회의 안정에 힘입어 오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차츰 활기를 되찾을 징조를 보이고 있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채찍질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 기업인과 근로자의 합심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기업인의 협조체제는 우리의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정의구현과 복지국가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기업인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고 여러분의 기업이 이만한 성장을 이룩하기까지에는 근로자들의 값진 땀이 그 밑거름이 되었음을 되새겨 근로자들을 한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가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격의없이 대화를 통해 노사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더욱 깊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기업인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때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이치를 되새겨 고용의 안정과 불합리한 저임금의 해소는 물론 근로환경의 개선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기업의 품질관리와 생산성에도 제고되고 대외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 여러분도 지금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현실적 좌표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깊이 이해하여 상호협동과 융화의 정신으로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안정되어야 여러분의 일터가 보장되고, 여러분의 사회가 잘 되어야만 여러분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고용의 유지와 안정, 근로조건 개선 및 노사간의 협조증진을 위한 행정지도를 꾸준히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근로청소년들의 자조노력을 뒷받침하고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한 근로청소년의 복지후생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5공화국의 역사적인 출범과 함께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정의로운 복지사회건설의 희망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산업의 발전과 나라의 흥성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는 높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한편 자기 향상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정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1백만 조직근로자의 총본산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일깨워 근로자들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아울러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인,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새로운 각오와 일체감으로써 자기직분을 완수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약진을 거듭하여 민주복지국가건설의 목표를 앞당겨 성취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그간 산업발전과 노동운동에 공을 쌓아 오늘 표창을 받은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한국노총의 무한한 발전과 근로자 여러분 및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